

선진미술관서 배운다 일본편

⑬ 日 오사카 국립국제미술관

‘걸작’ 수시로 들여와 지역민 ‘문화 갈증’ 푼다

일본의 오사카 국립 국제미술관은 오사카시의 랜드마크다.

국립 국제미술관의 역사는 30여년을 거슬러 올라간다. 지난 1970년 오사카에서 열린 일본 만국 박람회의 전시관 건물을 리모델링해 지난 1977년 개관 한 뒤 지난 2004년 현 위치로 이전했다.

국립 국제미술관은 오사카의 중심인 나가노시마로 옮겨오면서 획기적인 건축방식으로 건물을 신축, 오사카의 상징으로 자리매김했다.

지상에서 건물을 쌓아올리는 기존 개념에서 벗어난 국립 국제미술관은 전시실이 모두 지하에 있는 일본 유일의 지하 미술관이다.

뉴욕 현대미술관(MOMA)을 설계한 세계적인 건축가 시저 페리(Ceser pelli)의 작품인 이 건물은 미술관이 아닌 하나의 작품으로 통한다. 건물 입구에 세워져 있는 철기둥들은 대나무의 생명력과 현대미술의 발전과 성장을 상징하는 이미지를 구현한 것으로 세계 건축학도들이 즐겨 찾는 명소가기도 하다.

고흐·피카소 등 유명 작품 빌려와 특별기획전
광장, 공연장 개방 시민 북적이는 ‘문화예술관’
전시실 3개층 지하에...일본 유일 지하 미술관

국립 국제미술관은 재도약을 위해서 민간을 포함한 국·내외 미술관과 네트워크 전시를 활발하게 추진하고 있는 대표적인 미술관이다.

최근에는 소장중인 피카소의 ‘팔걸이 의자’ 등 애아있는 ‘나무’ 등을 바탕으로 오사카 근대 미술관에서 피카소 작품을 빌려와 피카소 특별기획전을 열어 시민들의 발길을 붙잡고 있다.

이 전시의 핵심을 이루고 있는 것은 미술관이 운영하고 있는 ‘민간 위탁제’를 통한 피카소 작품들이다. 현재 개최하고 있는 피카소 기념전은 오사카의 유명 컬렉터가 미술관에 보관을 위탁한 작품 70여점이 바탕이 되고 있다.

오사카 국립 국제미술관은 국제적인 교류를 위해 자체 보관중인 작품들을 적극적으로 해외에 보내고 있다. 앤디워홀이 실크스크린 기법으로 찍어낸 ‘마릴린 먼로’ 등 작품을 한국의 한 미술관에 빌려준 것도 한 사례다.

소장중인 컬렉션 외에 시민들의 문화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한 대형기획전도 연다. 지난해 고흐전을 기획, 무려 140만 관객을 동원하는 대성공을 거뒀다.

다테하타 아키라 관장은 “자체 컬렉션을 확대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해외 네트워크를 강화해 국제 교류전을 개최하는 것은 우리가 갖지 못한 작품을 일반인들에게 보여줄 수 있는 제2의 컬렉션이다”고 말했다.

그렇다고 이 미술관의 컬렉션이 달리는 것도 아니다. 2차 세계대전 후 여러 나라에서 전래된 현대 미술작품의 컬렉션이 5천여점에 달한다.

20세기를 대표하는 작가들인 세잔느, 피카소, 칸딘스키, 에른스트 등 유명 작가들의 작품은 물론 팝아트 작가인 앤디 워홀을 비롯 최근 미술시장에서 각광받고 있는 흑인 팝아티스트 바스키아의 대표작도 소장하고 있다.

특히 소장품으로는 오하시 컬렉션이 유명하다. 오하시 컬렉션은 오하시 화학공업주식회사 사장이었던 고 오하시 카이치씨가 수집, 기증한 것이다. 그는 오사카 국립국제미술관 개관 이듬해인 1978년에 미술품 800점을 기증한 것을 비롯 2천여점을 미술관에 기탁했다.

국립 국제미술관은 최근 들어 일반인들에게 문턱을 낮추고 있다. 미술관이 전시를 보여주는 곳이라는 이미지를 벗기 위해 매달 상설 공연장으로 미술관 중앙 현관을 개방하고 있다.

다양한 클래식 공연과 퍼포먼스의 장소로 미술관 공간을 제공함으로써 미술관이 아닌 문화예술관으로서 시민들의 사랑을 받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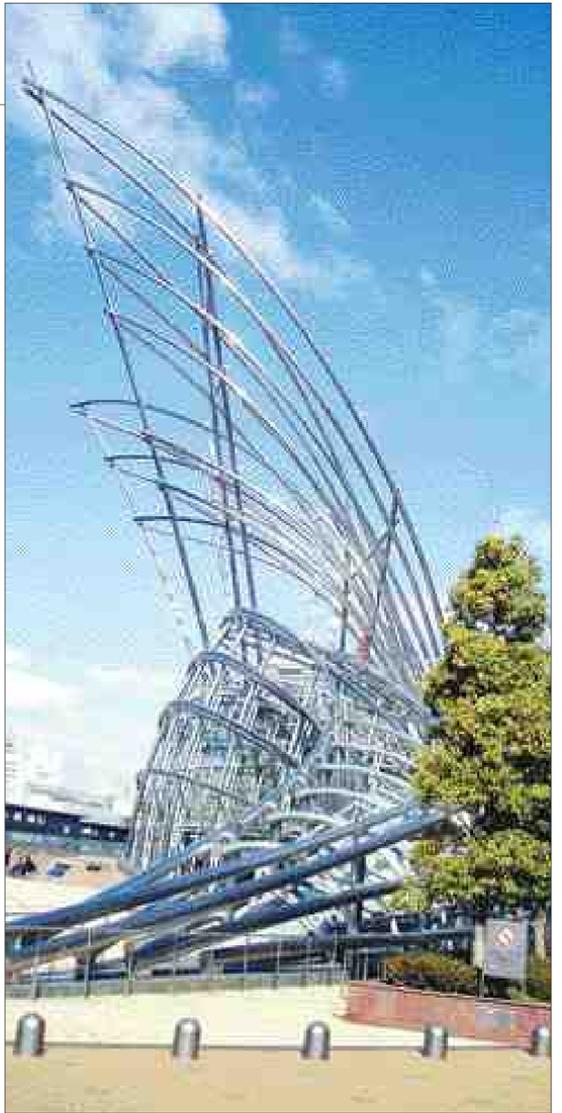
국립 국제미술관을 표방하고 있는 국립 국제미술관은 관람객들을 배려한 공간으로도 주목받고 있다.

전시관 안에 있는 카페는 투명한 유리창으로 벽을 만들어 관람객들이 차를 마시면서도 전시장 로비 등에 설치된 모빌과 조각 작품을 관람할 수 있도록 배려했다.

카페에서는 지하 1층 벽면에 설치된 스페인 작가 호안 미로의 대형 세라믹 회화인 ‘순수한 미소’와 천정에 매달려 있는 칼더의 ‘붉은 모빌’, 조각가 헨리 무어의 ‘Large standing : Knife edge’ 등 작품을 편안하게 감상할 수 있다.

자녀를 둔 관람객들의 편의를 위해 어린이 휴게실을 따로 마련해 놓고 있다. 어린이 휴게실에서는 아이들의 눈높이에 맞춘 미술서적들이 갖춰져 있으며, 영아를 둔 자녀들을 위해 수유 공간도 갖추고 있다.

/오사카=윤영기기자 penfoot@kwangju.co.kr



오사카 국립 국제미술관은 뉴욕 현대미술관(MoMA)을 설계한 세계적인 건축가 시저 페리가 디자인 했다. 지상에 세워진 철기둥들은 대나무의 생명력과 현대미술의 발전을 상징하고 있다. /윤영기기자 penfoot@kwangju.co.kr



국립 국제미술관이 소장하고 있는 걸작들. 왼쪽 위부터 시계 방향으로 앤디 워홀의 ‘마릴린 먼로’, 마르셀 뒤샹 작 ‘L.H.O.O.O.’, 칸딘스키 작 ‘그림속의 그림’, 장 미셀 바스키아 작 ‘Untitled’

‘미술관, 민간경영기법 도입 능사 아니다’

다테하타 아키라 관장

“미술관은 동시에 시민들의 수요를 충족시키는 것 뿐 아니라 미술이라는 문화유산을 보존하는 차원에서 운영되어야 합니다.”

다테하타 아키라(56) 오사카 국립국제미술관장은 “미술관이 작품을 수집하고 전시하는 데 있어 예술의 보존이라는 철학을 벗어날 경우 결국 후대에 물려줘야 할 문화유산을 받기하는 것이 된다”고 말했다.

그는 “미술관은 근본적으로 관람객들을 위한 공간이지만 예술가들이 활동하는 무대이기도 하다”며 “현대미술이

일반인들에게 친숙하지 않다고 대중들이 좋아하는 작품을만을 전시해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일본 국·공립미술관이 최근 독립행정법인으로 전환한 것과 관련, “국·공립 미술관과 박물관에 민간 경영기법을 도입하는 것이 반드시 바람직하지는 않다”고 강조했다.

독립행정법인 체제는 일본정부가 국·공립 미술관, 박물관 등 정부 부속기관에 민간의 경영기법을 가미해 업무의 효율성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지난 2001년부터 도입한 정책이다.

다테하타 아키라 관장은 “한국도 언젠가는 이 같은 경영기법을 도입하게 될 지도 모른다”며 “미술관 관계자들이 일본 독립행정법인의 장·단점을 참고했으면 한다”고 당부



그는 “실제 히로시마 시의 현대미술관의 경우 학예연구원이 절반 가량 감원되면서 미술관 본연의 업무에 차질을 빚는 등 부작용을 겪고 있다”고 덧붙였다. /윤영기기자 penfoot@kwangju.co.kr

부광공인중개사
(주)부광공인중개사
☎ (대)854-4520 (주)16-629-1718
(복수 주택)
전원주택지 분양 대행
<부동산, 부동산, 전민마을>
소재지: 화순군 동면 서성리
단지면적: 7,000평(약30필지)
분양면적: 200평 단위
요양가격: 평당 55만원
접근성: 동광주C(15분)
분양시기: 3월8일부터 선착순
세금혜택: 1가구 2주택 무관
무주택자의 'Nature IN' 전원주택
요양실, 심폐계, 주일침, 콘도형
레저형의 다양한 동호인 주택
전원주택 및 기층용
(1/2 지면주택과 그린벨트)
- 화순읍 이십곡리 670평
- 매매가: 2억5천만원
(남,여)공인중개사 모집
유경원자 우대

대인부동산컨설팅
☎ 011-625-0510
(상촌동 한국병원 옆)
식당, 일식, 핫집, 레스토랑, 교외전문점
1층 50평 임대
1층 30평 임대
- 봉선동 한국·생물아파트 전문점
학원임대 (1층 25평 봉선동 학원소재지)
- 봉선동 최고요지 (생물·한국아파트 정문앞)
- 최고의 주거지역
- 초·중·고 인접
학원 임대
- 봉선동 생물·한국아파트 입구
8m도모길 6차선계획도로임
- 대모원 사거리코너
- 5층 103평 보너스 빌185만
- 최고 인테리어 시설 비품 포함
토지매매
- 관산구 신정동 하남터지지구권
- 8m도모길 6차선계획도로임
- 145평 평당 750만
- 수원터지지구 F블럭 상입지역
- 동광주시도이동 택지지구
- 상업지역 416평 평당 50만
상가건물매매
- 봉선동 생물아파트 정문앞
- 대지 140평, 건물 200평, 매매가 18억5천(용자4억)신축건물
모빌매매
- 여수시 학동 버섯가방
- 대지370평 건물 560평, 매매가 42억(용자15억) 매매가 28억

금보부동산컨설팅
☎ (대)281-8949 ☎ 011-602-2233
(복수 우산사 문흥초등학교 정문앞)
산림매매
- 복수 우산사 우산사 내지 9500평 평당 1200만
- 남구 봉선동 우산사 내지 9500평 평당 1200만
- 복수 우산사 내지 9500평 평당 1200만
- 남구 봉선동 우산사 내지 9500평 평당 1200만
- 남구 봉선동 우산사 내지 9500평 평당 1200만
고시원매매
- 복수 우산사 우산사 내지 9500평 평당 1200만
- 남구 봉선동 우산사 내지 9500평 평당 1200만
건물매매
- 복수 우산사 우산사 내지 9500평 평당 1200만
- 남구 봉선동 우산사 내지 9500평 평당 1200만
주유소매매
- 남구 봉선동 우산사 내지 9500평 평당 1200만
개소출점소매매
- 남구 봉선동 우산사 내지 9500평 평당 1200만

A+ 에이플러스공인중개사
시정호를 예측하는 전문가들의 자산컨설팅평가
광주·전남권 토지·건물 구합
Tel: (062)973-9174, 016-757-8800
매매상담전화-사업목적부지-건물-자산투자부지 등 계약목적에 최적화하고 적정보유기간은 예측하는 매매상담
거래전문성-최상의 경제효과와 신속성, 법률적 안전성, 사회적 비밀보호를 지키는 거래
무인모델부지: 2500평 평당 2000만~12000만
현역에 답안조 관리는 현역부지
평당 240 270 510 1100 5000
골프연습장: 15억 수억이상
수원택지개발지구
이주지역: 78평 4000만~12000만
영일호안지역: 86평 4000만~12000만
생태지역: 2500 2500 4900평
상부지구
260평 4500만 200평 4200만
전용가능한사업부지
지역별: 3800평 대형차진입 6차선길 평당 90만
생산지: 2800평-광동광리근로 평당 65만
우량임야
25년: 광주25년 연수원복지시설임야 5000평: 담양 고속도로 7분
50년: 광주25년 광동광리 7000평: 담양 고속도로 10분
15년: 광주40분
영일호안지역 2500평 4200만
몰류창고부지
5000평: 담양 고속도로 7분
7000평: 담양 고속도로 10분
공장
정형 3000평 하남공단 980평
도 집
실전경험 풍부한 실장님과
적극적인 남·여가족을 모십니다.
● 광주·장성권 토지 건물 ●
투자유망물건 대량 보유(0천만원~000억원)
062)973-9177, 011-625-1362
현대지구 국민은행 주차장 옆으로 주소지

현대공인중개사
☎ (062)371-1900, 010-2006-0115
(상무 무리병원에서 50m 지점, www.85858949.co.kr)
급매물 상담 후 10일내 책임 증개
<급히 구합니다>
[건물]
● 병원건물이나 병원으로 임대가능한 건물 현금5억
● 임대 소득이 높은 상가 건물
[토지]
● 전원주택부지-광주시내나 장성, 담양, 화순
● 관산구 관리지역-삼도, 본량
● 평동공단 2차단지 부근 토지
● 투자 가치가 확실한 토지
<급히 팝니다>
● 하남 2지구 택지
준주거용지 170평 9억5천만원, 170평 9억원, 최고의 상권
● 학원, 정비공장, 식당, 창고부지
입주용, 자연부지, 424평, 25m도로에 접, 평당200만원
● 미풍동 김대중컨벤션앞
생산지 908평, 평당180만원
● 매월들 유통단지 택지
자연부지, 미야 인버저택 인근, 2400평 평당 75만원(분할가능)
● 창고 공장부지
210평, 평당 110만원 벽진동 주거지역
● 공장 창고부지(투자도기할)
관리지역, 관산구 입산동 1800평 대형차량 진입가능 4만원
● 원동부지: 금호동, 대지 237평, 평당 135만원
● 평동 간 도로변 상가부지: 61평 평당 750만원

(주)옥션코리아
법원 경매
☎ 222-8446 (법원경매매입할당 열)
▶ 아파트
▶ 숙박시설
▶ 농지
▶ 주택+대지
▶ 근린상가
▶ 근린주택
▶ 공장
▶ 근린시설
▶ 공공장소
▶ 기타